

16/11/27(주) 주일예배 / 제목 : 기도, 제대로 합시다 (마 6:5~8) p.8

(5)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6)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7)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8)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들어가는 말 /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대로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 / 설교를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것은 교인들이 듣고 싶어 하는 설교가 있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런 시국에 목사는 뭐라고 설교할까?' 그런데 교인분들은 이미 마음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맞으면 은혜 받은 것이고 마음에 안 맞으면 '오늘 설교는 은혜가 안되네!'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설교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하여 오늘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를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듣다보면 마음에 안 맞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성경 본문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어느 목사님의 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분은 늘 영성일기 칼럼을 쓰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의 비리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영성일기 칼럼을 썼다고 합니다. 그분의 글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감추어진 죄를 두려워하고 마음을 열고 살아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함께 기도 합시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엄청난 비난 댓글이 달렸던 것입니다.

그 비난 댓글의 내용은 한마디로 "지금도 기도할 때냐, 행동할 때지?" "언제까지 기도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기독교인들이기에 당황스러웠고 너무나 두려웠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기독교인들도 기도하자면 분노하는 시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측근에 있는 어떤 분이 목사님의 글을 이렇게 해석해 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자, 주님을 바라보자' 라고 글 쓴 것을 사람들은 '대통령의 비리를 덮고 가자.' 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분의 글을 보고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소수의 목회자분들이 교인들을 잘못 인도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만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기독교인들조차도 기도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생각에 너무나 안타까워했습니다. 기도가 무시당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섭리가 무시당하는 느낌이었기에 더욱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우리가 기도를 잘못된 부분들도 있었기에 이런 말을 듣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들이 기도했던 기도와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와의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였고, 주님은 그 대답으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주기도문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기도를 열심히 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는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여 사람 들으라고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골방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골방기도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좀 전에 예화를 들었던 그 목사님도 영성일기 칼럼에 ‘24 시간 주님을 바라보자’는 글을 올렸는데 “어떻게 24시간동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며 온갖 비난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24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가능성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갈망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이고, 관계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기를 갈망하는 자를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사람들이 주님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밀하게 다가오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

에 거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는 마치 연애 시절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24시간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는 말씀은 결국 관계의 문제입니다. 주님은 “취지 말고 기도하라” ([살전 5:17](#))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취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느냐? 라고 따져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는 그의 모든 삶이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기도만으로도 새 힘을 얻습니다. 찬송가 364장에 보면 '내가 그 시간 때 가장 즐겁다'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 작가는 '월포 목사'인데 소경입니다. 세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기도하는 그 시간만은 가장 즐겁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앞에 날날이 바로 이뤄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나 위로받게 하시니 기도하는 그시간이 정말 즐겁다.' 이는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이 고백이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행동도 기도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기도한다면서 행함이 없는 것은 거짓 기도가 맞습니다. 그러나 행동이 기도라고 하면서 골방 기도가 없다면 그것은 속이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골방기도가 있는 사람이 가장 개혁적이고 실천적인 사람입니다. 이를 실제적으로 증명해 보인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아모리 족속 다섯 왕들과 기브온에서 싸울 때에 대승을 거둘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해가 지는 것을 보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수10:12](#))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여호가 어떻게 이런 담대한 기도, 엄청난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시려 하신다는 것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과 달을 향해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 여호수아뿐이겠습니까? 여호사밧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는 모압과 암몬이 치러 왔을 때, 극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다가 그 전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임을 깨닫고 전쟁터로 나갈 때에 찬양대를 군대에 앞세웠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일반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승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바라보는 삶은 전도하다가 붙잡혀 매 맞고 옥에 갇힌 상태에서 한 밤중에 기도하다가 찬송을 부르는데, 감옥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방기도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골방 기도란 하나님과 나 단 둘이서 만나는 곳입니다. 모든 것을 차단한 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골방기도입니다. 골방 기도가 없이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셨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8절) "...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주기도문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을 이루어주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굳이 기도를 받고서야 이루어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이루어 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배경은 창세기 1~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 마귀의 말을 듣고 범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고 죄와 마귀가 지배하는 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마귀가 왕 노릇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배경을 놓고 기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게 만드시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필수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란 근본적으로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실로 주기도문은 엄청난 내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놀라운 계획이 담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며 많이들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주기도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사실 엄청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모르니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분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이 분의 간증에는 주기도문의 능력이 가득 넘쳐납니다.

"저는 가난했던 유년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 제겐 한 가지 꿈이 있었는데, 그것은 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돈

을 많이 벌수 있다면 어떤 직업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께 크게 혼이 나고 가출을 하였습니
다. “돈을 많이 벌어 돌아오겠습니다.” 땀땀 거리며, 금의환향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어느 곳에서도 가출
한 고등학생이 일할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가출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선택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나쁜 짓을 하
다가 결국 경찰서에 가게 되었고 부모님이 찾아 오셨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구치소에 있게 되었
습니다.

10일 정도 되었던 그 시간은 비참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주기도문을 예배가 아닌 시간에 외워보았습니
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도 몰라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외웠던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그것은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기도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참한 순간 깨달아지는 것은, 애기 때부터 15년이 넘도록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과 어떻게 대화 하는지조차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는 기도란 주기도문 밖에 없어
서 하염없이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갑자기 눈물이 터졌습니다.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은 목사가 되었습
니다.”

이처럼 주기도문은 아무 짝에도 쓸데없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동안 솔직히 기도하지 않고 사신 분, 계십니까? 기
도에 실패했다고 여기고 기도에 불신을 가지고 있는 분 계십니까? 기도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칠 것입
니까? 기도가 없는 내일, 내년을 맞이하시렵니까? 이제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던 제자들의 심정을 가지
고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문으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대통령 비리로 인하여 정치가 위기이고, 경제도 위기이고 안보까지도 위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처
한 진짜 위기는 영적위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기도가 성도들의 관심사에서 벗어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
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시대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정치인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
이 아니라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주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기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실례로 노아 당
시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창 6:3)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됴이라” 여
기서 육체가 되었다는 말은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무감각해졌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 시대
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하는 일은 나라를 위해서 골방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수십만명의 한국인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집회와 행
진이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촛불 집회에 참가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구국기도회에 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나라를 걱정하는 행동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위하는 행동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를 위하여 골방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나 아니냐 하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한 위키**’는 "하나님은 오직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여 역사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너무 뻘해서 기도할 것도 없다’ 그 순간을 조심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 행동부터 한 것 때문에 언제나 땅을 치는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낙망한 채 주저앉아 있어도 안 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눅 18:8)** 이 말씀은 낙망하지 않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매달려 문제해결을 받았던 과부의 이야기 끝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은 “낙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를 보시면서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낙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주님만 더욱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진짜 기도의 삶을 살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끄십니다.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롬 8: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결론 /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 때,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나라를 위하여 골방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추진하고 있는 10분 기도운동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바램이 이제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램만 가지고서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핵심 : 위기가 올 때마다 골방기도를 합시다.